

베트남DMC대상 메타버스 및 트렌드 교육



# 트렌드코리아 2022



2021.11.01 하나투어 인재개발팀



# 트렌드코리아 2022

김난도 外 9인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15년째 발간하고 있는  
<트렌드코리아 2022>를 통해 10개의 키워드 두운을  
“TIGER OR CAT”으로 잡았다.

팬데믹 이후 상황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  
기업보다 진화의 속도가 더 빠른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갈림길.

웅비하는 호랑이가 될 것인가, 주저하는 고양이로 될  
것인가?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2 전망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이혜원

# 트렌드 코리아 2022

검은 호랑이의 해,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차례다



TIGER

대한민국  
No.1  
트렌드서

OR CAT?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라







# T I G E R · O R · C A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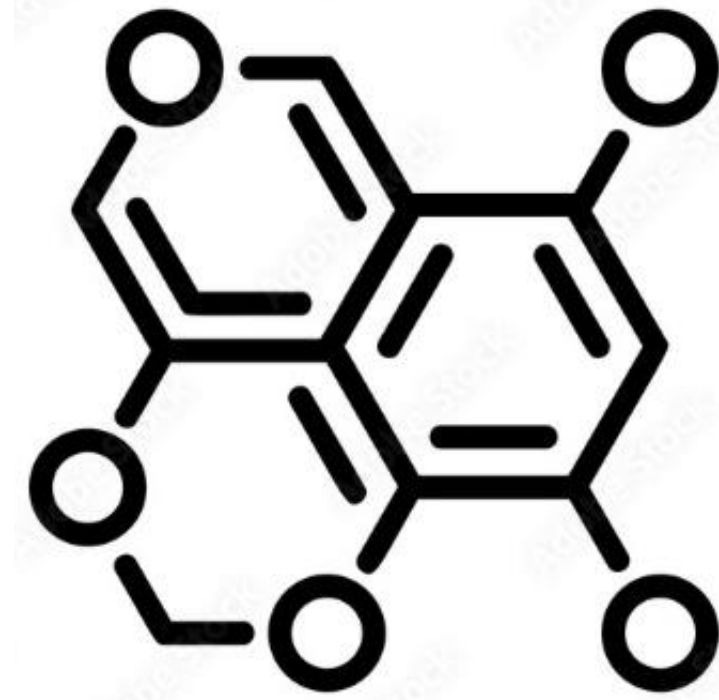
## 2022년 범띠해 10대 트렌드 'TIGER OR CAT'



<b>T</b> 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나노사회	파편화된 개인들 분열 가속화
<b>I</b> ncoming! Money Rush	머니러시	투잡과 투자로 돈 벌러 나선다
<b>G</b> otcha Power	득템력	돈만으로 못 사는 희소 상품들 인기
<b>E</b> scaping the Concrete Jungle	러스틱 라이프	도시 속에서 시골의 여유를
<b>R</b> evelers in Health	헬시플레저	젊을 때부터 내 건강은 내가 챙긴다
<b>O</b> 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	엑스틴 이즈 백	올해의 주인공은 X세대
<b>R</b> outinize Yourself	바른생활 루틴이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자기관리
<b>C</b> 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실재감테크	삶으로 들어온 메타버스
<b>A</b> ctualizing Consumer Power	라이크 커머스	페이스북·인스타 보고 쇼핑하는 시대
<b>T</b> ell Me Your Narrative	내러티브 자본	확고한 자기 스토리가 기업·개인 경쟁력

# Transition into a 'Nano Society'

## 나노 사회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트렌드” “노동의 파편화와 산업의 세분화”  
한국 사회는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 간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극소단위로 분화됐다는 의미에서 ‘나노사회’(nano society)라 명명한다.

# Incoming! Money Rush

## 머니러시



수입을 다변화·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 **'머니러시'(money rush)**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머니러시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라 불리는 수입에 초점을 맞춘다.

'투잡' · 'N잡' · '투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여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필요로 한다.



# Gotcha Power

## 득템력



경제적인 지불능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 명명한다.

값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갖기 어려운 아이템을 누가 얻는가가 과시와 차별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사치의 대중화로 인해, 높은 가격보다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이 차별화의 기호가 되었으며 상품 과시의 시대, 돈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시작되었다.

# Escaping the Concrete Jungle – ‘Rustic Life’

## 러스틱 라이프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向) 라이프스타일을 ‘러스틱 라이프’라 칭한다.

도시와 시골 생활의 비중을 조절하여, 소박한 ‘촌’스러움을 삶에 더하는 새로운 지향이다.

과밀한 주거·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에게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트렌드이다.

# Revelers in Health – ‘Healthy Pleasure’

## 헬시플레저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즐겁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가 대세가 되고 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거나 절제하려 하지 않고, **맛있고 즐겁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하는 트렌드**를 ‘헬시플레저’라 칭한다.

헬시플레저는 뿔뿔이 흩어진 나노사회 속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자기관리의 하나이며, 치료에서 예방으로 중점이 바뀐 새로운 트렌드의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다.



# Opening the X-Files on the 'X-teen' Generation

## 엑스틴 이즈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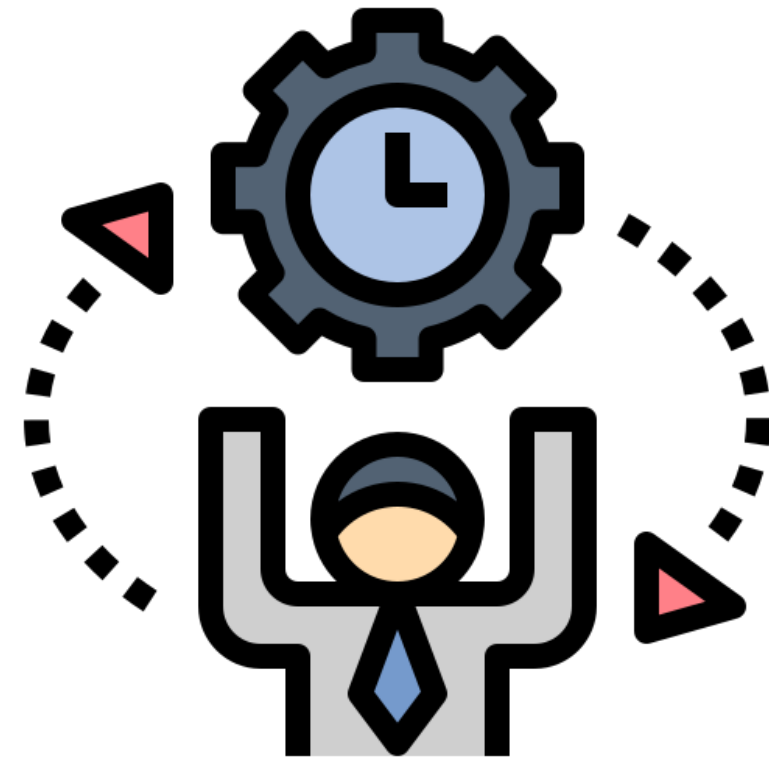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소비의 양적 규모나 질적 파급력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세대인 X세대(1965-79년생), 그 중 X세대의 핵심인 70년대생을 '엑스틴'(X-teen)이라 칭한다. 경제적·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를 보내며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간직하고, 10대 자녀와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세대이다.

기성세대와 MZ세대(8-90년대생) 사이에서 **신구 세대갈등을 받아내는 '깁세대'**이자 **정치사적 격변기에 주요 변화를 만들어낸 주역이며,** 현재는 **시장을 소비력으로 이끄는 주도세력**이자 허리이다.

# ○ Routinize Yourself

## 바른생활 루틴이



외부적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루틴(routine)을 통해 스스로 자기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요즘 사람들을 '바른생활 루틴이'라 칭한다. 근로시간 축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과 업무의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자기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고 큰 성공이 어려워진 나노사회와 반복되는 일상에서 '미세행복'을 추구하면서 자아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루틴이들의 업무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어야 한다.

# Connecting Together through Extended Presence

## 실재감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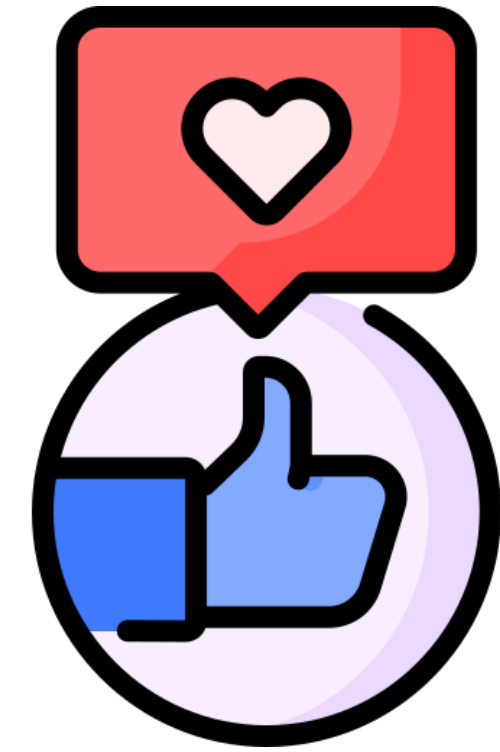


'언택트'가 일상의 일부로 자리잡은 시대,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완전한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기술, 현실과 가상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일련의 기술들을** 아울러 '실재감테크'(extended presence technology)라 칭한다.

실재감테크는 여러 감각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중감각, 현실의 시간 흐름과 동시에 흘러가는 동시성, 직접 몸을 움직여 집중하는 체험성을 주요 요소로 하며, 우리의 감각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어떻게 고객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

# Actualizing Consumer Power – ‘Like Commerce’

## 라이크커머스



기존 생산자 주도의 시장 패러다임에서,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의 기획·제작·판매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 주도 유통과정을 동료 소비자들의 '좋아요'(like)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크커머스'라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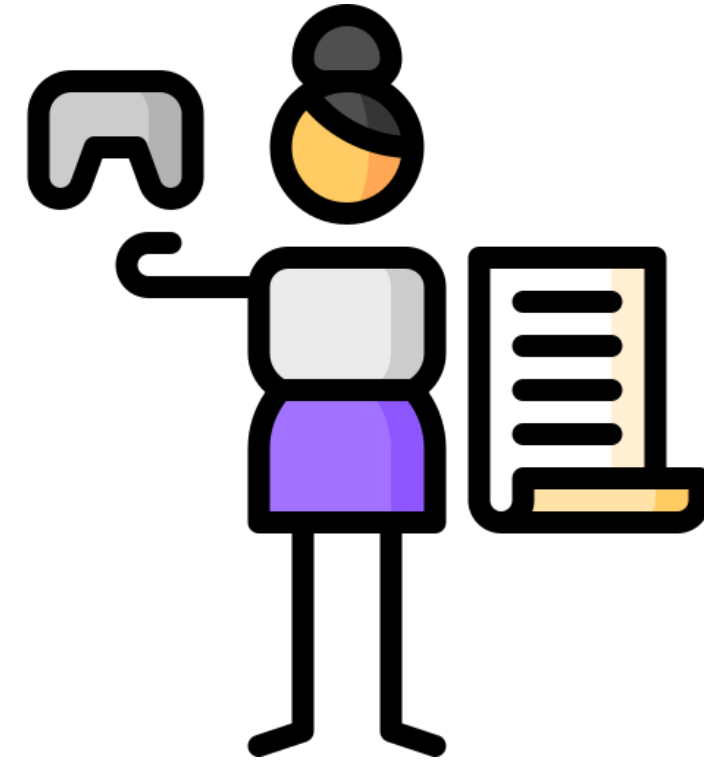
개인이 팔로워의 '좋아요'(like)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의 '선호'(like)를 예측하며, '수요'(like)를 모아 공동구매 방식으로 상품을 출시하기도 한다.

아무때나 쇼핑이 가능하고, 비대면이 필수가 되면서 라이크커머스가 많은 사람들의 경력대안이 되고 있다.



# ○ Tell Me Your Narrative

## 내러티브 자본



강력한 서사, 즉 내러티브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발화의 주체가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내러티브 자본'을 갖추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가짜 내러티브의 확산이 우려되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가려내고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또한 중요하다.

